

청소년활동가의 글쓰기¹⁾

정 건 희²⁾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1. 시작하며

우리의 일들은 대부분 '글'로서 표현된다. 글은 일의 수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청소년운동이라고 칭하는 일을 시작하며 맨바닥³⁾에서 활동할 때가 있었다. 국가나 지자체, 공동모금회 등에 프로포절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 이후 평가 받을 때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열심을 넘어 치열하게 사업했다고 생각했지만 평가는 온전히 문서로 귀결되었다. 평가 받으면서 몇 줄 글로 이루어진 문서가 이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지역과 청소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노라고 순전히 나만의 관점으로 주장했지만 평가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놈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운동(movement)이란 움직임 안에서 이루어지며 어떠한 변화를 추동하기 마련이다. 그 변화는 나름의 이상과 철학이 녹아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글은 필수였다. 행하는 일은 결국 '글'로 남기 때문이다. 글은 행하는 모든 일을 해석하고 정리하며 성장시키는 가장 귀한 과정이고 수단이자 목적이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일'뿐일까? 일반 기업의 일 또한 또한 글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기획서와 평가서, 회계 사무에 관련된 모든 기업의 일들은 문서작업이 일이자 과정이다. 문서는 곧 글이며 이러한 글이 어떻게 쓰이고 정리되어지느냐에 따라 기업에서는 사람의 위치가 변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의 글이란 행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확인하고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이다. 아마도 모든 일들은 글이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나와 같은 일을 통해 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장과 긴밀히 만나야 한다.

1) 현장의 활동가(Worker)분들 특히 청소년활동가(Youth worker)와 사회사업가(Social worker)를 대상으로 쓰인 글입니다. 사회적 관점과 운동(movement)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이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삶을 고민하는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babogh@daum.net, <https://www.facebook.com/babogh>

3) 시민단체활동이었다. 지속적인 공공적 지원예산은 없었다. 순수하게 민간회원 수입과 프로젝트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후원회원이 많지 않아서 상당수 사업들을 정부나 지자체, 공동모금회 등의 프로젝트에 의존할 때였다.

지역중심의 청소년활동가라고 주장하는 내 위치에서도 현장과 만나야 하고, 그 지역에 청소년과 관계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관계에서 글이 쓰여지기 마련이다. 사회적 글쓰기라는 용어가 어디서 튀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나름 데로의 해석은 여기에 있다. 사회와 만나는 과정에서의 글쓰기다.

문제는 글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나에게 글쓰기는 삶의 즐거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힘겨움이다. 현장 활동가 입장에서 맞춤법은 차치하고라도 글이라는 것을 써야 하는 이유부터도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행정문서 작업정도로 마쳐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현장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글을 써야 하는지 등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떻게 써야 하며, 잘 쓴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직도 완전히 정립한 상태도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현장 활동 가운데 글을 써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와 방법들이 있을 뿐이다. 더불어 글을 잘 쓴다고도 할 수 없다. 빠른 시간 안에 주장 글을 자주 쓰다 보니 문체가 투박하기 그지 없다. 다만 지금까지 현장에서의 삶으로 여기까지 이끌고 오게 된 동력 중 하나가 글을 통하여 경험한 일들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주요했다. 일의 해석은 글로써 표현되었고 다듬어 졌다. 청소년활동, 복지, 교육 등의 몇몇 영역에서 청소년을 중심 주제로 발을 걸치면서 삶을 영위하는 동안 글은 단순히 일하는 도구로서가 아닌 삶의 이유를 해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강의 의뢰 받고 간단한 글쓰기 형태나 몇 가지 사례만 정리하려고 했었다. 사회적 글쓰기라는 강의를 요청한 주관처⁴⁾에서는 원고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동안 읽었던 책의 내용과 경험 몇 가지, 더불어 인터넷에 떠다니는 오만가지 글쓰기 방법 중 이해하는 몇 가지만 설명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왜 글을 쓰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글을 쓰는 과정을 정리해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이유였다.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방법적은 측면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글쓰기라는 것이 여러 방법론을 안다고 해서 빠르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어려웠다. 그럼에도 현장 활동가가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본 글은 현장의 활동가(worker)들이 사회적 관계에 따른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글 쓰는 방법론도 그 동안의 몇 가지 경험에서 정리해 보고자 했다. 철저히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것도 밝힌다. 그저 이 글을 읽고 나의 강의를 듣는 이들과 같은 위치의 현장 활동가로서 그 동안의 경험을 나눈다는 정도로 받아 들여 주면 좋겠다.

4) 사회복지책마을, 사회복지웹기획

2. 통념에 저항하며 신념을 의심하기

고교를 졸업한 직후 바로 군대에 입대했다. 입대 이전에 군대는 사람을 철저히 복종시키며 관리 하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한 신념 때문인지 군대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제대한 후에 대학에 갔다. 대학에서도 군대에서 익혔던 관리 통제적인 선후배의 모습들이 옳다고 여겼다. 군대문화는 사회적 선후배의 관계까지 연장되었다. 우리 사회가 나에게 가르쳐 준 신념이었다. 만약 현재의 내가 20대 초반의 사회적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면 근래 일어나고 있는 군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피해자들의 군기 문제로 치부 했을 것이다. 군대내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치열하게 저항하는 분들에게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며 서슴없이 비난도 했을 것이다. 내 성향상 더 이상한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사회적 통념에 길들여진 군대문화의 주요 키워드인 간섭, 통제, 교화, 처벌, 교정은 당연한 일이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대는 사회집단에 비해 더 많은 통제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군대의 통제 방식은 전인격적인 범위로 확대되고 만다. 개인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전면적인 통제로 개인의 자존감까지 위축되면서 지배하는 군대가 된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 ‘구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인식은 자연스럽다. 우리 사회적 통념이다.

근래 일어난 윤일병구타 사망사건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의 분석 기사가 있었다. 선진국 군대가 ‘조작하는(manipulate) 군대⁵⁾’라면 한국군은 ‘지배하는(rule) 군대’이며 지배하는 군대는 구성원을 불완전한 인격체로 간주하고 간섭, 통제, 교화, 처벌, 교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아서 구성원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없고, 어떤 실수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이라는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만이 부과된다. 이런 조직에서는 개인에 대한 통제장치들이 범람하게 되는데, 먹고 자고 입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공적·사적 통제의 대상이 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수많은 규율이 강조된다.⁶⁾

기사 제목처럼 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형성하고 만다.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의 사회적 통념에 저항하는 간절한 문구다. 조작하는 군대와 지배하는 군대에 대해 생각해

5) ‘조작하는 군대’는 구성원을 하나의 인격체로 가정하고 구성원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성을 요구하며 적절한 보상과 처벌로 협력을 유도한다. 구성원은 비록 집단에 복종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지이며, 공동체에 소속된 것도 바로 자신의 선택이다. 이런 조작적 집단은 개인의 인격을 통제하는 규율과 통제 장치를 남발하지 않으며 단지 집단의 정체성, 단체성, 책임성,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유지할 뿐이다.

6) 결국 복장, 태도, 예절과 같은 외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규율이 범람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양록, 반성문, 암기사항 점검을 통해 내적 질서 유지 상태도 점검된다. 또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각종 통신수단도 제한되고 부대의 울타리가 높게 형성되며 과도하게 보안이 강조된다. 특히 병사 개인에게는 간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출처. 한겨레신문(2014.10.31.), ‘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면서 글을 쓰는 순간 군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조직인지 알게 된다. 내가 10대와 20대를 관통하며 알고 있었던 군대라는 곳의 사회적 통념에 부딪친 것이다.

통념이란 사전적 의미로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옳은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옳지 않은데 옳다고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사는 이들도 있다. 통념의 또 다른 의미로 ‘몹시 아프게 생각함’이라는 뜻이 있다. 통념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다.

부림사건⁷⁾에 공안검사였던 최병국 검사의 눈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구성애씨 부군이 부림 사건에 연루되어 입건되어 고문을 받았고 교도소에서 남편을 꺼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최병국 검사의 눈을 기억한다며 그는 실제 나라에 충성하는 과정이라고 믿는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했다. 불과 30여 년 전에 있었던 부림사건에 대해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은 33년만인 지난 2014년 2월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자기신념에 따른 행동들은 과거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은 일베에 의한 사회적 이슈가 그렇다. 일베저장소 운영자 새부는 일베를 "유머 위주의 커뮤니티"라 소개하며 "정치적 성향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적었다.⁸⁾ 그러나 일베의 정치 스펙트럼은 주로 우익과 극우로 분류된다.⁹⁾ 정치평론가 김민하는 한겨레²¹에서, 일베저장소의 특징으로 민주·평화·개혁세력에 대한 혐오, 지역감정, 여성 혐오 그리고 진지한 것에 대한 냉소가 있다고 표했다¹⁰⁾.

일베는 여성과 호남, 장애인, 다문화 사람들을 비하한다. 심지어 초등학교에 임용고시 합격자인 회원은 자신의 제자들을 ‘로린’이라며 성적 대상화를 해서 사회적 논란¹¹⁾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농성장 앞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을 조롱하는 ‘폭식투쟁’을 하고, ‘일베 인증’ 손동작을 하며 애국가를 불렀다. 일베 회원들은 이날을 ‘906 광화문대첩’이라 부르며 자축했다. 이러한 일베저장소를 분석한 키워드는 ‘무임승차론 앞세운 일베식 정의 구현’이었다.

7) 부림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출처. 위키백과

8) 동아일보 (2013. 5. 30) 하루 100만 명 클릭 극우성향 집합소 ‘일간베스트저장소’ 대해부
<http://news.donga.com/3/all/20130530/55509300/1>

9) SBS (2013. 2. 23.). '5·18, 北 주동한 폭동' 황당 주장 논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647616

10) 한겨레²¹([2012.11.05 제934호] 이주의 트윗-‘일베’의 정치성, 네오나치의 ‘스멜’이 풍기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194.html

11) 노컷뉴스(2014. 9. 25). '일베'에 초등제자 성적묘사 교사 재임용
<http://www.nocutnews.co.kr/news/4094250>

일베가 보기에, 여성·진보·호남이 공유하는 특징은 ‘권리와 의무의 불일치’다. 여성은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고 남자를 등쳐먹고, 진보는 제 능력으로 성공하는 대신 국가에 떼를 쓰고, 호남은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뒤통수를 친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공해온 역사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¹²⁾. 국가 건설의 주역은 남성·산업화세력·영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여성·진보·호남이 동원하는 전략은 ‘이중 잣대’와 ‘떼쓰기’라는 것이다. 그들만의 신념이다.

우리사회는 자기신념과 통념으로 가득 차 있다. 옳고 그른 것은 그들만의 자기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 그 신념이 어떻게 생성되어서 자신의 인식을 만들어 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오로지 내가 가진 신념과 다른 사람들의 그 무엇이 다르다고 느꼈을 때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 바쁘다. 이들과는 다르게 자기 신념을 의심하는 소수가 있다. 김훈 선생님이 근래에 기자들 앞에 서서 강연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가령 나의 무질서와 계통 없음을 말하는데, 누군가 인간의 신념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는 신념을 가진 자의 편이 아니고 의심을 가진 자의 편인 것 같다. 신념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구태여 내가 어느 편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의심을 가진 자들 쪽에 더 많은 진실이 있다고 생각한다.”¹³⁾

이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삶을 의심하며 옳은지에 대한 자기성찰의 과정이 아닐까? 글은 나에게 만큼은 삶의 진솔한 모습을 투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과정이고 목적이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보고 행하는 당연한 과정이다. 또한 어떤 논리를 만들어 내고 해석하는 생각의 과정에서 글은 필수적이다. 나에게 만큼 글이란 생각의 과정이면서 이 사회의 통념에 저항하고 신념을 의심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3. 청소년운동의 해석

사람이 만들어 가는 삶의 해석은 말로써 가능하다. 그 말들은 글로써 해석되기도 하고 남기도 한다. 행하는 일이 그렇다. 대부분 10대, 20대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일은 진행이 된다. 청소년들과 그들의 삶이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일들이다. 이러한 사람들과 공간이 긍정적으로 변하기를 바라면서 무엇인

12) 시사인(367호, 2014.09.29)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1>

13) 조선비즈(2014. 11. 02). 작가 김훈 "나는 왜 쓰는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66&aid=0000226568&sid1=001>

가를 행한다. 목적이 있는 일 안에서 사람과 공간 등의 역사와 문화 등 그 무엇인가를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은 어떠한 관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만남의 과정에서 나를 중심으로 변화를 추동하기도 하지만 나 또한 변화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누군가와 만나게 되니 이는 당연한 과정이고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 대부분은 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에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수도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 진행한 일들의 과정에 그 어떤 변화를 겪으며 가슴에 남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지 않고 사업의 실적이라며 정산서와 몇 줄 안 되는 평가서, 사진 몇 장 남은 게 전부인 사업들도 있었다.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일을 벌려 놓은 채 치열했지만 지나고 보니 무엇이 남았는지 내안에 해석이 안 되는 일들도 많았다. 그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남았다. 자칫 운동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상화한 경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진행한 수많은 일들은 나에게 무엇이였을까? 어떤 때는 해석이 되진 않아도 그 일의 치열함 안에 내공이 쌓였다며 자위했지만 돌이켜 보니 내안의 내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무엇을 행할 때 어떠한 이상이 있어야 했고, 그 이상은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맞닿아 있어야 했다. 그러한 과정가운데 변화의 궤적을 해석하는 일이 운동에 가까웠다. 이러한 지역의 청소년운동(Youth movement)은 당연히 과정가운데 해석이 필요했고 그 해석은 유치하게나마 끄적이는 글로서 가능했다. 글이란 내가 행하는 일을 해석해 주었다.

사람의 삶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그 어떤 변화를 글로 남기며 그 안을 해석해 가는 일들은 나에게 만큼은 너무나 중요했다. 청소년 현장의 치열함이 묻어 있는 그 어떤 참여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이벤트의 과정이었다.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벤트도 있지만 이러한 이벤트가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는 경험 이 많지 않았다. 사업일지라도 이벤트가 아닌 철저히 당사자 중심으로 나올 때 삶의 연결은 가능했다. 이렇게 삶과 연결되는 사업들은 나만이 아는 그 어떤 관점 안에서 감동하고는 했다.

현장 활동가가 글을 쓴다는 것은 여기에 맞닿아 있다. 내가 속한 공간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 어떤 발버둥 치는 행위의 기록이다. 내가 현재 사회에서 가진 신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자기해석의 과정이기도 했다.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행하는 일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신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형성되는 신념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해석하려는 노력이 적어지고 게을러 질 때에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나 주요한 대상인 10대와 20대를 관통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아니던가? 그들의 삶을 그들 안에서 해석하고 관계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청소년들의 열정과 창의력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경험과 지식들을 권위의 도구로서 사용하며 신념을 더욱 강화하는 기재로 사용하지 말아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해석이 필요하며 그 해석의 과정은 결국 글로서 표현되기 마련이다. 청소년활동가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통념에 저항하고 신념을 의심하면서 ‘일’을 행하는 삶의 해석의 수단으로서 ‘글’이 가장 귀한 도구이며 목적이라면 억지일까!

4. 사회와 만나기

머리에 꽃을 꽂고 눈을 감아버린 박근혜 대통령, 그 위에는 수배 중(WANTED), 아래에는 미친 정부(MAD GOVERNMENT)라는 뜻의 영문이 인쇄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그려서 4500여 장을 서울시내 고층 건물 옥상에서 뿌린 직후 경찰에 연행된 이하 작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통에 나서지 않는 박근혜 정권을 비판’¹⁴⁾하기 위해 풍자 포스터를 그렸다는 것이 이유다. 이하 작가는 인류의 행복을 저해하는 대상이 정부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상징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그렸으며 예술이 사회와 만나는 경험¹⁵⁾을 강조한다. 다음은 그가 신문사¹⁶⁾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미국에 있을 때다. 원래 미술이 아니라 영화를 공부하러 간 것인데 지망하던 대학원에 떨어졌다. 갑자기 놀게 되면서 영상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밤에 좀 위험하다. 흑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가로등도 없고 가로등이 있으면 불량배들이 다 깨버린다. 담배를 사러 밤길을 가는 중에 누군가 2층에서 맞은편 벽을 향해 빔 프로젝트를 쏘고 있었다. 벽에 비친 이미지는 큰 장총을 든 사냥꾼이었다. 굉장히 근엄한 자세로 사냥꾼이 총을 들고 서 있는 이미지였는데, 이게 나한테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줬다. 위험하고 삭막하고 무시무시한 거리에 이 이미지가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이게 불량배들에게는 ‘너희들 여기서 위험한 짓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고, 반대로 나 같은 소시민들에게는 ‘내가 너희들 지켜볼게’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다. 그걸 보고 ‘이게 사회와 소통하는 예술이구나’라고 느꼈다. 미술로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미술을 안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미술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세상과 소통하는 예

14) 오마이뉴스(2014.10. 22) 이하 작가 “불통 박근혜에 제대로 엮 먹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5787

15) 김어준의 파파이스27회-건조물침입 그리고 포스터모더니즘, 팟케스트

16) 주간경향(2014. 06. 21). 박근혜 탄핵전’ 여는 이하 작가 “부친의 정치철학에서 벗어나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11518101

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었다.”

이하 작가가 현재의 사회적인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자신의 예술이 사회와 만나는 경험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다. 박제화 되고 사유화된 예술이 아닌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그림이 만나서 사회와 소통하며 어떠한 변화의 축으로서 작용하는 경험이다. 예술이 사회와 만난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유럽사회에서는 이러한 예술 장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 있다고 했다. 예술도 사회와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사회라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우리는 사회와 소통하면서 만나고 있을까. 사회적 글쓰기는 현장이 사회와 어떠한 교감을 가지고 있으며 소통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의 공간에 주인으로서 행세하며 자주하기를 원한다. 삶의 공간은 가정이기도 하고 학교, 지역사회 등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일 수 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생각하며 자신의 위치에서의 권리를 가지고 책임지며 행동하기를 바란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상한 신분을 제외하고 그 어떤 위치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잘 못 규정지어진 위치권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도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을 다른 위치로 대할 때면 청소년들조차도 혼란스러워 하곤 한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가장 큰 위치적 담론은 왜곡된 학생의 신분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이들¹⁷⁾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학교 내외에서 그들의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위한 일들을 한다. 문제는 그들의 일들이 사회와 관계없이 그들의 직업의 수단으로서 공고해 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와 관계없다는 것은 그들을 통한 그 어떤 변화의 배움이 그저 뜬구름 잡는 하늘 날아다니는 일들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현장의 활동가의 글쓰기는 이러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어린이,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의 당사자들과의 실질적인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회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들의 사회적 삶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며 해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실질적인 삶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만남의 해석은 글로써 표현되기 마련이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은 학생으로서 단정함을 강조하며 미완성 인격체까지 표상되는 보호·관리의 대상으로서 작동하는 주류담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에게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며 무엇인가를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교사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이겠다. 예를 들면 상당수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지 못한다. 만약 이들에게 서비스라며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할 일들은 간단하다. 아침밥을 잠시 동안

17) 국가의 자격을 취한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방법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 포괄하는 관점이다.

가져다주거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라면 후원을 받거나 사업을 하거나 해서 아침밥을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근래 모 지역의 청소년관련 광역기관의 부탁으로 평가위원으로 잠시 참여했었다.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면서 만들어 가는 사업에 대한 평가였다. 몇 개 팀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당위성을 ‘공부와 아침밥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하면서 상위권의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는 비율이 월등하다며 밥을 먹어야 한다는 캠페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캠페인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캠페인을 하거나 아침밥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아침식사를 거르면서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주변적 일들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아침밥을 먹을 수 없는 그들의 환경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지속가능한 변화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침에 학교를 가야 하는 시간, 영교시 수업, 강제(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의 비정상적인 수업이 아침식사를 거르게 하는 원흉이다. 이러한 문제를 청소년들이 확인하게 하고 이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자기 생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좋은 일¹⁸⁾’이라고 칭하는 단편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와 만나게 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가 곧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과정이다. 기관시설에서 자기들의 사업이라며 학생들 시켜 아침밥 먹기 캠페인 하기 보다는 아침밥을 왜 먹을 수 없는지를 분석해서 그 근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문제를 보호하는 게 아닌 사회에 개입하여 만나게 하는 일이다. 활동가로서 글을 쓴다는 것은 여기에 있다¹⁹⁾.

청소년사업들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과 함께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등 수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와 만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글쓰기의 고민은 여기에 묻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을 만나는 직업군들²⁰⁾ 중 청소년지도사와 사회복지사 등 상당히 많은 일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이끌어 내며 진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즉,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 지역사회와 청소년자신과 그 사이

18)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나 후원받아 간식을 나누어 주는 행위들

19) 모든 사업들이 이러한 사회참여와 변화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진로 프로그램 하나를 수행하는 데에도 사회적 관계없이 진행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관계를 통해 일들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청소년진로활동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실질적 관계보다는 사업적 대상으로서의 만남을 이루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지역사회의 사람들의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나려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20) 자격증이 없어도 청소년활동가로서 청소년들 주체로 세우고 그들이 삶의 환경에 참여를 돕는 모든 이들을 뜻하기도 한다.

를 매개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의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은 글로써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한 글은 단순히 밥을 몇 끼 먹어서 맛있고, 맛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과정에서의 그 어떤 변화에 대한 해석이 글로 나타나는 것이다. 활동가로서 글을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회적으로 만남이 있는 이 과정에서의 변화를 기억하고 해석하기 위함이다. 사회와 만나는 것은 단순한 한두 가지 척도로서 변화 과정을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와 만나는 그 경험에서 오는 과정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석은 글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5. 글쓰기 방법의 제안

글을 쓰는 이유를 요약해 보니 삶의 진솔한 모습을 투영하는 과정이다. 특히 생각을 정리하고 사회의 통념에 저항하며 신념을 의심하는 도구다. 일을 해석하는 과정이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 어떤 발버둥 치는 행위의 기록이다. 그러한 글쓰기 과정 가운데 사회적 글쓰기라는 하나의 관점을 보면 결국 우리의 일이 사회와 만나는 그 지점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사자들의 삶과 어떠한 교감을 가지고 있으며 소통하는지에 주목하며 정리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사회적 글쓰기는 당사자들과 사회와의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행위이다. 여기에서의 파악이란 사회의 문제를 보호하는 게 아닌 개입하여 만나게 하는 일로서의 글을 뜻한다. 활동가로서 글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또한 자기만의 해석이 중요하며 그 해석 또한 글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²¹⁾.

먼저 글이란 소통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한다. 글의 목적은 제각각이지만 가장 중요한가지를 꼽아 보라고 한다면 ‘소통’이다. 글로 표현되는 영역은 논문, 일기, 편지, 과제, 시, 소설, 사업보고서와 평가서, 낙서, 칼럼, 잡지, SNS와 블로그, 카카오톡 등의 소셜미디어에 쓰는 글 등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글을 쓰는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직장에서 보고서나 기획서를 쓰는 이유, 시와 소설을 이유,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는 글 등 수 많은 글의 이유가 있다. 공통적인 이유 한 가지를 뽑아 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즉 소통일 것이다. 이 글 모두가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쓰이는 글이다. 일기는 누구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만의 역사

21)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이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송구하기까지 하다. 그저 강의를 의뢰 받은 입장에서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서술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작성하는 것이니 편하게 받아 들여 주면 좋겠다. 더불어 비판할 내용이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기 바란다. babogh@daum.net

로서 또 다른 자신과 소통하려는 기제는 아니던가. 자신을 객관화해서 소통하는 도구일 수도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타자와 소통하고 나 자신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여러 복잡한 관계와 현상, 그리고 즐거움과 아픔 등을 글로 써 놓고 보면 내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나와 소통의 과정이었다. 글이 소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둘째,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 자신과 소통하기 위해 쓰는 글을 제외하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쓰는 글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대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생각으로 서술하여 상대에게 읽힌다는 것은 자칫 폭력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기도 하지만 우리네 글쓰기 누군가 의도된 대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글 또한 마찬가지다.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썼다. 가급적이면 그들 수준에서 이야기하고자 노력했다. 논문을 쓸 때 달라지고 신문사 칼럼을 쓸 때 글의 내용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더불어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쓰는 글이라면 이런 식의 글은 읽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 대상의 위치에서 글을 쓰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과 사회를 만나는 과정에서의 해석이 글로써 표현된다. 현장 활동가에게 글이란 사회적으로 만남이 있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기억하고 해석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자신이 행하는 어떤 일들이 실제 어린이,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의 당사자들과의 실질적인 관계는 무엇이며 또한 그들의 사회적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변하는지를 쓰는 것이다.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단편적인 몇 가지 진행 일정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현장 활동가의 글이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변화 과정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세밀한 변화의 과정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은 글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넷째, 글의 내용에 집중한다. 우리는 문학가도 아니고 국문학자도 아니다. 청소년운동가 또는 워커(Social worker)로서 글을 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일의 과정이다. 사업보고서나 사례나 면담일지 읽으면서 가슴 뛰는 경험이나 눈물 흘려본 경험이 있는가? 사업보고서에도 이러한 가슴 뛰는 일들을 녹여낼 수 있다면 오버일까? 며칠에 몇 번 진행 했다는 단순한 형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다. 단순히 몇 줄 보고서 쓰듯이 이리저리 사업일정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다. 형식과 틀에 맞춘 몇 가지 일에 대한 보고서를 넘어서 온전히 운동적 내용이 담긴 가슴 뛰는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다. 청소년과 지역시민들을 어떻게 만났으며 어떠한 과정의 고민과 치열함이 묻어 있는지에 대한 순수한 과정의 기록이다. 특히 당사자를 사람으로서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온전히 묻어 있으면 좋다. 글쓰기는 가슴으로 느끼고 함께 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울곧이 남기는 것이다.

다섯째, 글쓰기 그 자체가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사회적 글쓰기, 사업을 위한 글쓰기, 청소년활동가 또는 워커로서의 글쓰기라고 표현하고 나니 자칫 글쓰기가 사회를 자기 가치에 맞추어 비판적 관점으로만 수단시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글쓰기는 누군가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다. 사회적 비판의 글을 쓸 수는 있으나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사회적 변화만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글 자체에서 얻는 삶에 대한 애착을 기억해야 한다. 어떠한 글이든 글 자체는 순수해야 하며, 솔직해야 한다. 글쓰기 자체가 내 삶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비판적 글은 자기성찰에서 시작된다. 당연히 글 안에 녹아 있는 여정은 삶에 애착을 갖는 과정이 된다. 단순히 사회적 글쓰기라는 미명아래 끊임없이 타자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글쓰기 그 자체가 자신만의 삶의 여정으로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여섯째, 글은 어디서나 쓰는 것이고 가급적 다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다. 최근 플래너를 버리고 백지만이 있는 스프링 노트와 함께 색연필과 다양한 색의 싸인펜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이전에 연구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면 간혹 노트북을 열어서 무엇을 메모하곤 했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고가의 플래너도 7~8년 사용하면서 실제 사용하는 양은 많지 않았고 다이어리도 일정 몇 가지 정리하는 것 빼고는 사용이 적었다. 노트를 사용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꽤 만족하는 편이다. 노트는 어디든 가지고 다닌다. 가능하면 무조건 적으려고 한다. 매번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인상적인 모임에서의 글들을 간략히 요약하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 넣는다. 강의준비 하면서의 과정을 정리해 보기도 하고 이전에 메모했던 글에서 다른 새로운 생각들을 얻기도 한다. 장점이 있다. 일단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고 일정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메모가 있으니 관리하기 편하다. 더불어 백지에 적으면서 창의력도 나온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 거의 하루 종일 노트북하고 씨름하는데 가끔은 이렇게라도 백지에서 또 다른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다. 글 쓸 때 생각 정리하는 하나의 기준과 재료가 된다.

일곱째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에 가끔씩 칼럼을 실는다. 칼럼의 주제는 대부분 청소년과 관련된 개인적 관심사다. 글을 쓸 때 한번에 감정을 실어 쓰기도 하지만 페이스북(facebook)에 올렸던 글에 대해 친구들의 논의와 비판 가운데 정리된 글도 있다. SNS에서의 글은 관련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이 직접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즉각적이다. 더불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비판과 제안을 해 주는 분들이 있다. 글에서 주장하는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 SNS는 일상적인 친구관계를 맺으면서 정보의 공유와 학습이 이루어진다. 글만을 놓고 보면 SNS에서 소통하며 다듬는 역할을 하고 블로그나 카페는 정리된 글의 공유의 공간으로 다시 활용하면서 토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당연히

글은 자꾸만 다듬어 지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다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글쓰기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관련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글쓰기 과정상에서의 제안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방식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온라인에서의 진지한 소통관계는 끊임없이 유지하라고 주장하는 편이다.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글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내 글을 누군가 읽는다는 것은 어떠한 문학적 감성이 뛰어나서도 미사여구가 좋아서도 아닐 것이다. 어떠한 정보를 위해서나 연구 과제 수행하는 글들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글들은 그 안의 진정성이 글을 읽게 하는 가장 큰 힘일 수 있다. 이전에 글은 미사여구가 난립했고 무엇인가 포장지를 잘 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글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있는 그대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내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다. 가능하면 자기 가치와 자기 철학을 기준으로 내 안을 비판해 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재의 우리사회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해 보기도 한다.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의 근본이 무엇인지도 쓰여진다. 그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솔직하게 진정성을 담아 쓰여질 때 공감은 컸다. 글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아홉 번째 기록하려는 것은 콘텐츠적 수단이 아닌 이상에 따른 관계 그 자체일 수 있다. 일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확대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기도 한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작업일 수 있다. 다만 우리 일에서 콘텐츠 즉,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정보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변화이기도 하다. 즉 우리 일에서의 콘텐츠는 단순히 그 어떤 공유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 당사자인 사람과 사회 특히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 자체가 중요하다. 사람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건들이 콘텐츠일 수도 있다. 그 무엇을 누군가가 보면서 감동하고 사용하며 공유할 때 좋은 내용이라고 일컫는다. 공유하고 싶은 좋은 내용이 나에게 쓰일 수 있는 그 어떤 기술적인 내용도 있겠으나, 상당수 우리가 행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 지는 일들로 귀결된다. 기술적인 일들보다는 감동되는 어떠한 헌신적 이야기에게 감동하기 마련이다. 내 것을 엄청 포기하는 헌신도 있겠으나 가능한 그 일의 근본적 가치와 철학에 맞추어진 일에 더 많은 감동이 있다. 청소년들을 만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일들 가운데 어떠한 사업 한 두 가지를 틀에 맞추어 콘텐츠 운운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몇 가지 규정된 개념으로 콘텐츠라고 설정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록하려는 것은 단순한 몇 가지 정보에서 머물기 보다는 관계와 그 변화의 과정 그 자체일 수 있다.

열 번째, 가급적 목적을 두고 모아서 갈고 닦자. 글이 써진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

가 있을 것이다. 어떤 글쓰기 모임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 사용하며 쓰여진 글을 바로 태우기도 한다. 그 순간의 자기들의 목적을 다한 거라고 여긴다. 어떤 이들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쓰기도 한다. 다만 우리와 같이 현장 활동가들의 글은 상당수 보고서나 사례, 매뉴얼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로서 쓰는 형식적 글들이 많다 보니 자신만의 글을 쓰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 글을 쓸 때에 직장이나 단체생활 하면서 써야 하는 형식적 글을 벗어나서 자신의 글을 목적을 가지고 써보면서 수정 보완해 보는 것이다. 글을 쓴 이후에 바로 사장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전에 지역 언론사에서 칼럼을 부탁해서 꽤 오랜 시간을 써 왔다. 이 글 또한 바로 사장되었으나 그러한 글들이 모여졌고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보면 치기 어린 글들, 손발 오그라드는 글이 많다. 남 보기에 부끄러운 글들이지면 돌이켜 보면 그 순간에 남아 있는 내가 가진 관점의 역사이기도 하다. 내용을 교정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보기도 하고 좋은 글로 다듬는 과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글들이 모여지면서 출판할 책의 기본재료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의 단편을 열볼 수 있기도 했다. 글은 그 순간의 목적뿐만 아니라 모여질 때 또 다른 목적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

6. 나가며

책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든 책이 팔려야 한다. 생계이기 때문이다. 나름의 치열함도 있고 의미도 있다. 사회에서 필요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시의적절하며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을 볼 때면 기분이 좋다. 출판사가 마케팅을 집중하며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도 있다. 그런류의 책들이 성공하기도 한다. 엄청난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읽어 보니 별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솝이야기 나올만한 한 꼭지 이야기 가지고 몇 장 안 되는 글을 잘도 늘려 댔는데 베스트셀러란다. 이유는 쉽다는 것과 마케팅의 승리라는 분석이 있는 책까지 있었다. 쥐 한마리가 치즈를 옮기는 것 하나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대변하는 것이냐 말이다.

책을 만들어 자기 홍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삼일 만에 책한권쓰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돈을 받고 워크숍하면서 10명이 한팀이 되어 책을 출판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저자라면서 강사로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였다. 책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었다. 순전히 마케팅 도구로서 사용했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책을 쓴다고 질이 떨어 질리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이틀여 만에 책 한권이 나온다는 것은 내 상식에는 좋은 글이 될 수가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출판 예정 중인 책이 세권이다. 이번 해나 내년 초에는 모두 출판하려고 계획

중이다. 대학이론서 한권과 30대에 썼던 막글²²⁾을 모아서 교정을 보고 있다. 이 책을 내려고 마음 먹은 것은 벌써 몇 년 전이다. 교정보면서 폐기하려는 생각을 몇 번 했었다. 하지만 출판하기로 결정하고 지인이신 출판사 대표님과 상의하면서 교정을 보고 있다. 이번 해 초에 페이스북 친구 분들이 시간을 내서 자체적으로 교정도 해주셨다. 계획대로라면 6월 초 중순에는 나와야 했는데 갑자기 터진 여러 사안으로 자꾸만 늦어지고 말았다. 마지막 한권은 교육복지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한 현장 이야기다. 근 7개월을 매달 선생님들을 만나서 속 이야기 나누었고 교육복지 선생님들이 글을 쓰도록 했다. 교정보면서 수정보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싶다.

사람들의 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형서점에 가보면 엄청난 양의 책들이 쏟아진다. 그 많은 책들 중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내안의 진정성 있는 사회적 관계와 내 관점의 변화의 모습으로 집중된다. 어린 시절 치기어린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유치한 내 마음을 들켜 버린 글들도 있었다. 그 때 생각하면 창피한 마음에 어딘가 숨고 싶은 마음이 크다. 오타도 많고 화려한 문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법에 충실한 글도 아닌 어딘가 부족한 글임에도 꾸준히 쓰려는 이유는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일는지도 모르겠다.

최근 김훈 선생님께서 언론에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면서 남긴 말씀은 글이란 어떻게 써야 하는지 현장의 활동가로서 생각을 깊게 해 주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수록 그것이 공허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많다. 나는 글을 쓸 때 되도록이면 개념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개념어가 아닌 말들, 그러니까 삶의 일상성, 생활의 구체성, 삶의 육질성과 닿아있는 말들을 가지고 글을 써보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개념어라는 것은 삶의 구체성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권력화 된 언어인 것이다. 개념이 설정한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구체성을 제거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개념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개념화 되어 버려 권력화 된 언어가 아닌 내가 현장에서 만난 나만의 관점에 따른 진정성 있는 글들. 다시 생각이 깊어진다.

22) 30대에 일과 함께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썼던 칼럼과 이런저런 글을 모았다.